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호

ISSN : 2713-6431(Print) 2713-6442(Online)

미혼 성인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정오영, 장석진

To cite this article : 정오영, 장석진 (2021) 미혼 성인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453-463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미혼 성인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정오영¹, 장석진^{2*}

¹상명대학교 박사수료, ²상명대학교 교수

The Influence of Unmarried Adult Men and Women's Implicit Narcissistic Propensity on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O-Young Jung¹, Seok-Jin Chang^{2*}

¹Ph.D., Sangmyung University, ²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의 미혼 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의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20~30대의 미혼 남녀 215명을 대상으로 주요 변수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가설 검증 결과 내현적 자기에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사이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매개하여서만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는 폭력 허용도에 대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시사성을 담고 있다.

주제어 :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데이트폭력, 폭력 허용도, 비합리적 관계신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implicit narcissism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on the tolerance of violence in dat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To this end, major variables were measured through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215 un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had experience in dating violence.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analyse the mediated effects of irrational rel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self-love propensity and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hypothesis testing showed that introspective self-love affects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It was also found that irrational relationships were completely intertwined between implici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tolerance.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ndicate that irrational interrelationships only affect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ggestive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an prevent dating violence by proving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bout violence tolerance.

Key Words :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Dating Violenc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Corresponding Author : Seok-Jin Chang(schang@smu.ac.kr)

Received November 2, 2020

Accepted January 20, 2021

Revised December 1,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1

1. 서론

데이트는 남, 녀 두 사람이 애정의 관계로 만나는 것을 말하며,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기 전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 중간에 의견충돌이나 갈등, 다툼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한 말다툼과 같은 심리적 상처를 주는 상황도 생기며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 등의 성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 남녀가 데이트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데이트폭력은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2020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 ~ 2019년까지 3년간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7년에 1만 4136건에서 2018년에는 1만8671건, 2019년에는 1만 994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상해가 가장 많았고(7300명), 체포 및 감금, 협박(1067명), 성폭력(84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살인 미수, 살인도 35건이나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3, 4]. 그 외에 친밀한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도 상당하다는 보고를 통해 볼 때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1, 5].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대부분 여성에게 주로 일어나는데, 이처럼 생물학적·신체적인 성(Sex)의 개념을 가진 문화에 의해서 성별 권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 한다[1, 6]. 젠더 폭력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기반으로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총칭한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 생기는 폭력이며, 수치심 및 사회적 낙인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개입도 힘들다는 것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1, 5].

최근 들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연인인 여성에 관한 집착과 유형, 무형의 데이트폭력 및 미투 운동, 스토킹 범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N번방 사건’과 ‘진주 안인득 사건’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 사건에 대한 시대적 심각성과 정책적인 미비함이 이슈로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 국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7]. 스토킹 방지법은 그동안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미한 처벌만 이루지고 있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계류중에 있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하나의 범죄로서의 사회적인 인식개선 또한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 중 통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8].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협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트폭력의 예측 변수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교제하는 동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다면 상습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기에 연결 고리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9].

최근 데이트폭력에 관한 대응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전에 대책을 강화할 것과 사후 또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및 제도 제정이 조속히 마련될 것을 강조한다[10-12].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접근에 주목 가능하나, 많은 선행 연구들은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서는 개인의 심리 내적인 변인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에 책임 귀인, 인지적 공감, 거부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3], 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성향으로 분노[14-17], 공격성[18], 충동성[19] 등이 보고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및 열등감[20], 공격성[15], 성 역할 고정관념 및 성적 자기 주장성[21], 관계신념과 책임 귀인[22], 폭력 허용도[23, 24] 등도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에서 ‘폭력 허용도’란 폭력사용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로서, 상대방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폭력에 대한 사용을 정당한 방법으로 인식할수록 데이트폭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17, 25]. 폭력의 합리화처럼 폭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을 보일 경우, 데이트폭력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데이트 중 상대방 기대치에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데이트 교제 중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데이트폭력에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10, 26]. 또한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9, 21, 25, 27-30]. 최근 데이트폭력을 해석하는데 개인의 내적 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31], 개인의 내적인 특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밀한 데이트 관계에서 내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내적 특성의 하나로 ‘자기애(Narcissism)’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폭력성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으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 자기에 성향은 데이트폭력을 예측하는 변수로도 주목받고 있다[32]. 자기애(Narcissism)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관한 관심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의 존재 필요성을 부인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숭배하는 개념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인간에게 있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자기애는 모든 사람에게 내재 된 것이며, 자신 스스로와 본인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33].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자기애의 숨은 역동에 관심을 갖고, 표현되는 모습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하고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에 대한 거대한 자기환상과 특권의식, 성공, 미, 권력에 대한 공상, 자만심, 과한 자기과시,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34].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강박 증상, 완벽주의, 부정적 자기개념, 우울감, 분노, 불안, 외상에 대한 취약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친밀한 사이에서만 위세적이고 웅대한 망상이 나타나며, 겉으로는 우울, 불안, 예민한 모습만을 보인다[35]. 이들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편, 불안하고, 우울해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를 많이 겪지만, 분노를 억눌러서 만성적인 분노 상태에 머문다[36].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인간관계에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사람보다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33]. 이처럼 자기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서적인 극단성과 자기중심적인 대인관계로 인하여 부적응적 관계가 예상되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3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에 주목하여 데이트폭력 허용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인 연인 사이에서 비합리적인 기대를 갖는 경우, 상대를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22].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다른 사람의 대우에 민감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주의, 자기 비하 및 특권의식, 인정에 대한 집착 등 인지적 왜곡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 상대방에게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와 기대를 하는 비합리적 관계신념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38, 39].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비실제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아

무런 근거가 없으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고나 신념”이다[22]. 이러한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공격성, 우울증, 불안, 무가치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40]. 특히, 연인 사이에 관한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연인 사이에 대한 그릇된 가정과 기준을 바탕으로 이론 신념으로, 서로에 대한 잘못된 심상을 갖고, 연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나 사건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함으로써 갈등이 심해지는 특성을 나타낸다[41]. 이처럼 연인 관계에 대한 개인이 갖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연인 간의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와 행동을 만들고 그 결과로서 연인 사이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되는 악순환 과정을 겪게 한다[42, 43].

이러한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내현적 자기애에 관해서는 선행, 후행 관계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38, 44]. 먼저 강한 집착과 경직된 사고를 가진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낙관성으로 연결된다는 권미소의 연구는 비합리적 신념이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4]. 반면에 본인에게 맡겨진 일은 무조건 잘 해야 하고, 제 3자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는 판단, 누구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공정해야만 한다는 그릇된 신념들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 중 관계적 공격성 및 사회불안과 우울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어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45].

Ellis가 말한 비합리적 신념을 토대로 Eidelson과 Epstein(1982)[43]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을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22]. 첫째, “의견 불일치에 대한 신념”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신념이다[47, 48]. 둘째, “마음 알아주기에 관한 신념”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로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요구와 선호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신념이다[46, 47]. 셋째, “변화 가능성에 관한 신념”으로 친밀한 상대방이 스스로 바뀔 수 없다는 신념이다[23]. 넷째, “성적 완벽주의에 관한 신념”으로 성 관계시 상대방에게 완벽한 성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신념이다[42, 43, 46]. 다섯째, “성 고정관념에 대한 신념”이 비합리적 관계신념으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자신과 완전히 달라서 서로 잘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다[43, 46].

이런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된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한 이성 관계, 이성과의 사귀 경험, 대중매체를 접하고 배운 경우가 많은 편이라 객관적

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비합리적인 신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져 있다[49]. 이런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 실망하고 의심을 반복함으로써 [50], 결국 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47, 51].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기가 힘들게 된다[43, 52].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비현실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면 사건해석을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여러 가지 정서적 부적응을 동반하게 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인 연인 사이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에 의하여 갈등상황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형성되면 데이트폭력을 보다 허용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2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데이트폭력 허용은 데이트폭력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23, 26]. 즉, 데이트폭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은 성별과 상관없이 데이트폭력을 유발하는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26, 53].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에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면 데이트폭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수들의 관계와 경로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54].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칠 때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는 존재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애 경험이 있는 20~30대 미혼 남녀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2020년 8월 1부터 동년 8월 14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남자

108명, 여자 107명, 총 215명으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에 맡겨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20부를 배부하였고, 질문한 설문지에 관한 답변 중에서 미회수된 설문지와 부적절한 응답을 한 2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0부만을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 7문항, 내현적 자기에 27문항, 비합리적 관계신념 40문항, 데이트폭력 허용도 8문항,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1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측정 도구는 Akhtar와 Thomson[34]의 자기에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15]이 개발하고 한유정[55]이 수정·보완한 측정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현적 자기에 대한 세 개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목표 불안정인 9문항, 과민/취약성의 10문항, 그리고 소심/자신감 부족의 8문항, 총 27문항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 대한 하위 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현적 자기에의 측정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3$ 으로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2 비합리적 관계신념

비합리적 관계신념 측정 도구는 Epstein과 Eidelson[56]이 제시한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에서 역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한 관계신념 척도(Relationship Beliefs Inventory: RBI)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연규진[57]의 연구에서 '남편', '아내'로 변환된 문항을 '연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했다.

사용된 비합리적 관계신념에 대한 다섯 개의 하위 구성요인으로는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가 8문항, 독심술이 8문항, 파트너의 변화 불능이 8문항, 성적 완벽주의 8문항, 남녀차이 8문항으로 총 40문항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하위 요인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에 대

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3$ 으로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3 데이트폭력 허용도

데이트폭력 허용도 측정 도구는 Foo와 Margolin[58]의 폭력 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를 장희숙과 조현각[25], 서경현과 이영자[59]의 연구에서 이용한 질문지로 남현미[60]가 수정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참가자들이 8가지 상황 아래에서 연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1=매우 아니다; 4=매우 괜찮다)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8개 항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9$ 으로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of reliability

	Cronbach's α	items no
covert Narcissism	.933	27
Irrational beliefs	.773	28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879	8

3. 분석 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 50.2%, 여자는 49.8%이다. 연령대는 30세 미만이 48.8%, 30세에서 40세 미만은 51.2%이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대학교 재학이 17.2%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사무직이 37.7%로 가장 많고 생산, 기술직이 11.2%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distribution of samples

	category	frequency	%
sex	1) male	108	50.2
	2) female	107	49.8
age	1) 20-29 yr	105	48.8
	2) 30-39 yr	110	51.2

education	1) high school	22	10.2
	2) Univ. attend	37	17.2
	3) Univ. graduate	132	61.4
	4) graduate school (attend)	6	2.8
	5) graduate school (graduate)	18	8.4
job	1) white color	81	37.7
	2) production/tech	24	11.2
	3) service	15	7.0
	4) official	7	3.3
	5) profession	23	10.7
	6) self-employment	3	1.4
	7) student	40	18.6
	8) unemployment	14	6.5
	9) ets	8	3.7
total		215	100.0

다음 Table 3는 연애 경험 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현재 데이트 중인 응답자는 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기간은 1년 미만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 만족하지 못한 비율은 11.7%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stribution of dating experiences

	Category	frequency	%
Dating experience	I am currently dating	109	50.7
	Not currently dating	106	49.3
Dating period	1) Less than 6 months	27	12.6
	2) 6 months-less than 1 year	40	18.6
	3) 1 year-less than 2 years	39	18.1
	4) 2 year-less than 3 years	37	17.2
	5) 3 year-less than 4 years	20	9.3
	6) 4 year-less than 5 years	15	7.0
	7) more than 5 yrs	37	17.2
Dating satisfaction	1) very good	23	10.7
	2) good	79	36.7
	3) usually	88	40.9
	4) bad	21	9.8
	5) very bad	4	1.9
total		215	100.0

3.2 상관 분석 결과

상관 분석 결과는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과 내현적 자기애의 상관관계는 0.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합리적 신념과 데이트폭력 허용 간의 상관관계는 0.210으로 나타

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허용은 0.173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covert Narcissism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covert Narcissism	1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446**	1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173*	.210**	1

3.3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들과 같다.

1단계에서 먼저 독립 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3$, $p<.05$). Table 5. 하위 변인별로 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과민/취약성만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17$, $p<.05$) Table 6, 나머지 목표/불안과 소심/자신감 부족 등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variables		Non-standard B	S.E	standard B	t	sig. prob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cons.	1.104	.186		5.941	.000
	covert Narcissism	.153	.060	.173	2.564	.01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components)

variables		Non-standard B	S.E	standard B	t	sig. prob
	cons.	1.131	.187		6.043	.000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Target insecurity	-.005	.062	-.007	-.077	.938
	Irritability vulnerability	.169	.083	.217	2.047	.042
	Lack of confidence	-.016	.072	-.021	-.224	.823

Table 7.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mediating variable

variables		Non-standard B	S.E	standard B	t	sig. prob
irrational relations hip belief	cons.	1.994	.140		14.205	.000
	covert Narcissism	.327	.045	.446	7.266	.000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 변수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6$, $p<.001$). Table 7, 매개 변수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0$, $p<.01$). Table 8.

Table 8.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mediating variable on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Non-standard B	S.E	standard B	t	sig. prob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cons.	.813	.244		3.330	.001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253	.081	.210	3.141	.002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인 내현적 자기애와 매개 변수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동시에 모형에 추가한 분석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대한 매개 변수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beta=.166$, $p<.05$), 독립 변수인 내현적 자기애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9.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mediating and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Non-standard β	S.E	standard β	t	sig. prob
	cons.	.705	.257		2.743	.007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covert Narcissism	.087	.066	.099	1.324	.187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200	.090	.166	2.227	.027

다음으로는 소벨 테스트(Sobel Test)의 경우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고 보는데, 소벨 테스트(Sobel Test)의 결과 통계량(Sobel

test statistic)은 2.125으로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허용도와와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였다($Z=2.125$, $p<.001$). 따라서 매개 변수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허용도 간의 매개 변수임이 밝혀졌다. Table 10.

Table 10. Sobel test of mediating effect

variables	Non-standard		standard		sig. prob
	β	S.E	β	SE	
covert Narcissism	.327	.045	.446	0.045	.000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200	.090	.166	0.090	.027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폭력 허용도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애 경험이 있는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비합리적 관계신념 변인들의 인과관계와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 경험이 있는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날수록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대우에 과도하게 민감하여 부정적 반응을 피하려는 행동을 야기하는 특성이 있으며[6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16, 19, 38, 62]. 이 외에도 내적 변인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로 보았을 때 내적 변인으로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 18, 19, 61, 63].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하위 요인 즉, 무시나 비난에 매우 민감하여 취약한 자기개념을 회피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과민/취약성만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이 높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38, 62].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적 완벽성 및 용대한 자기환상과 같은 왜곡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취약함을 타인을 향한 폭력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고, 본인에게 이롭도록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연인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8, 61].

둘째, 연애 경험이 있는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 & Kenny[64]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때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통한 간접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55, 65],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제 상황보다 더욱 파국적으로 느끼며 그때 경험하는 강한 불안과 불안염려는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66]. 또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표현과 자기주장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와 [67],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우울, 불안,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대인관계 친화력 등의 사회적 성숙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68]. 즉,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인정을 받고자 하며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서적 혼란과 두려움이 반복되어 자기 파괴적이거나 공격적 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9]. 이처럼 연인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갖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연인 간의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와 행동을 만들고 그 결과로서 연인 사이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되는 악순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42, 4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애 경험이 있는 미혼남

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야기시키는 심리 내적인 변인이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특성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데이트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데이트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적 적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관계신념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내현적 자기애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70-72]. 즉, 연인들 간의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확인하는 한편, '서로 간의 의견 불일치', '상대의 마음 알아주기', '상대의 변화 가능성', '성적 완벽주의', '성 고정관념' 등과 관련하여 상호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대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발생된 데이트폭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자아개념을 점검하여 현실화하고 비난에 과민하고 취약한 자신의 특성이 연인을 향한 공격성이나 폭력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상담적 개입이 유용할 것이다. 그 밖에도 성숙하고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위한 관계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폭력 상황 시 대처 방법,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및 관리를 위한 기술 훈련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변수들을 구성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자기 보고식 설문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 및 자기 보고식 설문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지 외의 개인 인터뷰, 제 3자에 기초한 관찰 보고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애의 유형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 이외에도 외현적 자기애 성향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차후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하는 것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자기애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Hwa-suk Lee. (2016).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hilla University. Busan.
- [2] Chung Chunah.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xual self-assertion against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Thesis for doctoral degree.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3] After receiving a report of "dating assault" for two months, 1,700 people were charged and 47 people were arrested. (September 6, 2020). *Seoul Economic Daily*. <https://www.sedaily.com>.
- [4] 'Date violence' approaching 20,000 cases per year. The police are actively responding. (June 28, 2002). *Dong-A Ilbo*. <https://www.donga.com>.
- [5] Seo Hye-kyung. (2014). *A Study on the Reality of Dating Sexual Violence in Pusan and Gyeongnam Areas*, Thesis for Master's Degree, Kyungnam University.
- [6] Jin-young Lee.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tool for measuring gender sensitivity*.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 [7] 'Dating violence', patience leads to greater crimes.(August 24, 2020). *Gyeongnam Ilbo*. <http://www.gnnews.co.kr>.
- [8] Ronfeldt, H. M., Kim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78.
- [9] Jong-nae Kim. (2018).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related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10] Kyung-hyeon Seo. (2009), An Overview of Studies on Dating Violence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Korean Society of Health Psychology*, 14(4).
- [11] Sey-eon Oh & Young-gil Kwak. (2011).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of Dating Violence: Focusing on Case Analysis. *Korean Police Association*, 13(5).
- [12] Lee Yook-yung. (2020). *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Thesis for Master's Degree. Dongguk University. Seoul.
- [13] lang Jeong. (2013).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14] Kyung-hyeon Seo. (2002). Social learning variables and the role of anger on adolescents' dating violence.

-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2), 1- 15.
- [15] Seon-hee Kang, Nam-woon Jeong.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mplicit narcissistic scale.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4), 969-90.
- [16] Gwi-suk Nam, Su-jin Lee.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overted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7(1), 87-107.
- [17] Kyung-hyeon Seo. (2008). Anger and anger expressions, psychotic tendencies, addiction and coping methods of aggressive dating violence victim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2), 21-39.
- [18] Joom-yeong Chun & Young-jin Lim. (2017). The effect of implicit narcissistic propensity on reactive relationship aggression. *Youth Studies*, 24(12), 71-87.
- [19] Yu-jeong Kim & Kyung-hyun Seo. (2009). Impulse, anger and anger control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2), 383-402.
- [20] Jin Yoon, Seung-yeon Yang & Byeong-geum Park. (2012).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Paternal Sexual Role Attitude, and Inferiority on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Youth Studies*, 19(6).
- [21] Eun-suk Lee & Hee-sun Kang. (2014). Sexual role stereotypes, sexual self-assertion, sexual assault awareness, sexual assault tolerance and dating sexual assault experience according to gender. *Journal of East-West Nursing*, 20(1), 48-56.
- [22] Da-seul Son.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beliefs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23] Sun-young Yoo. (2000). *A Study on the Mediating Factors Between Domestic Violence Damage and Dating Violence Victims of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Dating Violence Toleranc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24] Jin Yoon, Seung-yeon Yang & Byeong-geum Park.. (2012).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Paternal Sexual Role Attitude, and Inferiority on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Youth Studies*, 19(6).
- [25] Hee-suk Jang & Hyeon-gak Jo. (2001). The reality and risk factors of heterosexual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Korean Family Welfare*, 8, 179-204.
- [26] Jeong-hee Han. (2020). *A study o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27] Ye-Jung Kim & Deuk-Sung Kim. (1999). Variables Affecting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1): Focused on the perpetrat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0), 27-41.
- [28] Hye-seop Shin & Hye-won Yang. (2005). Variables affecting physical violence against opposite-sex friends in early adolescents. *Youth Studies*, 12, 299-323.
- [29] So-young Jung, Chae-young Lim & Myung-shin Lee. (2011).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Inflicting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tolerance and relationship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27(4), 127-151.
- [30] O'Keefe, M. (1997). Factors predicting dating violence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31] Anguiyeoru. (2006). An overview of research on psychosocial risk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 709-726.
- [32] Da-won Park & In-hye Le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display, permissive sexual attitudes, and mild sexual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1(1), 153-172.
- [33] Mi-seon Kim. (2020).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troverted Narciss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34] Akhtar, S .& Thomson, J. A.(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 12-20.
- [35] Yu-mi Kwak.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external narcissism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36] Su-jeong Ryu. (2014). *The Influence of Introverted Narcissism on Internet Addiction: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Avoidance-Distributed Emotional Reg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37] Kyung-sook Lee.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explici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ccountability attribution*. Thesis for Master's Degree, Korea Counseling University.
- [38] Jung-gyun Kim & Seok-jin Jang.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er self-love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Counseling Studies*, 15(2), 791-810.
- [39] Jin-suk Lee & Myung-ho Hyun. (2012). The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f internal narcissism, passive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Youth Studies*, 19(4), 161-181.
- [40] Chun-rae Seo. (2006). Developing a scale for the

- irrational belief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rehensive Education Research*, 4(1), 65-86.
- [41] Yu-jin Kang & Sun-hwa Ok. (2005). The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about marital relationships on the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6), 155-165.
- [42] Ji-yeon Lee & Sug-yun Seo. (2011).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nflict Response Method between Irrational Beliefs and Satisfaction with Reason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0(3), 775-791.
- [43] Sil Bang.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44] Mi-so Kwon.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implicit narcissism and optim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beliefs and career maturity*. Thesis for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45] Hyun-min Shin. (2009). *The Influence of Introverted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rrational Belief as a Mediator*. Thesis for master's degree. Konyang University.
- [46] Epstein, N & Edileson, R. J. (1981). Unrealistic beliefs of clinical couples: their relationship to expectations, goals and satisfac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4), 13-22.
- [47] Ye-ji Min. (2018). *The effect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on aggression in heterosexual relations Moderating effect of mindfulnes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48] Satir, V. (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
- [49] Sharp, E. A & Ganong, L. H. (2000). Raising awareness about marital expectations: An unrealistic beliefs change by integrative teaching? *Family Relations*, 49, 71-76.
- [50] Huston, T. L, Niehuis, S & Smith, S. (1997). *Divergent Experiential and Behavioral Pathways leading to Marital Distress and Divorce*.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Washington, DC.
- [51]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 marital therapy*. NY. Brunner. Mazel.
- [52] Sang-hee Ha & Hye-jeong Jung.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beliefs of newlywed couple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Science and Technology*, 3(2), 27-38.
- [53] Hye-jin Son & Gwi-yeon Jeon. (2003). The effects of personal, relati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of unmarried men and women on dating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43-63.
- [54] Jong-nae Kim. (2018).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related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55] Yu-jeong Han.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and cognitive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Seongnam City.
- [56] Eidelson, R. J., & Epstein, N. (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15.
- [57] Gyu-jin Yeo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beliefs about marital relations and marital satisfaction: Analysis of self-effects and counterparty effects using a multilayered model*.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58]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59] Gyeong-hyun Seo & Young-ja Lee. (2001). A predictor of love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 91-106.
- [60] Hyun-mi Nam. (2003).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exual Violence on Dating in College Students and Factors for Predicting Harassment*. Thesis for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61] Seon-ho Won & Sung-man Bae. (2020). The Influence of Introspective Narcissism on Dating Violence: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Role of Dysfunctional Anger and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5(3), 549-567.
- [62] Ji-hyun Ahn. (2013). *The role of an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in the relationship of inner self-love, sham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sis for master's degree. Ewha Women University.
- [63] Si-won Kim & Kyung Par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overted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nger. *Youth Studies*, 19(10), 121-141.
- [64]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65] Eun-mi Kwon. (2006). *The effect of implicit narcissism on social phobia: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elf-efficacy*. Thesis for master's degree. Ajou University.
- [66] Mi-jeong Jung & Hyun-hee Jung. (2002). The effect of self-consciousness, self-concept, and irrational beliefs on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14(1), 39-53.

- [67] Oe-soon Um. (2002). *A study on irrational belief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anxiety*. Thesis for master's degree. Hoseo University.
- [68] Kang-ho Seon.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rrational beliefs and social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sis for master's degree. Inha University.
- [69] Joon-hee Kim. (1995). *The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on mental health*.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 [70] Si-won Kim & Kyung Par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overted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nger*. Youth Studies, 19(10), 121-141.
- [71] Jaee-un Bae.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fort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married men and women's implicit narcissistic tendencies and dating violence*. Thesis for master's degree. Hongik University.
- [72] A-ram Lee.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unmarried men and women's implici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uto-accidents and obsessions*. Thesis for master's degr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정 오 영(O-Young Jung)

[정회원]



- 2006년 2월 : 국민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 2011년 8월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
과 박사수로
- 2017년 2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박
사수로
- 2011년 8월 ~ 2014년 7월 : 신한대

학교 유아교육학과 외래 강사

- 관심분야 : 상담, 심리
- E-Mail: mentor0365@hanmail.net

장 석 진(Seok-Jin Chang)

[정회원]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
육학 석사)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
육학 박사)
- 2011년 3월 ~ 2014년 2월 : 상명대

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상담, 심리
- E-Mail : schang@smu.ac.kr